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부정·美協 돈 선거 광주 미술인 100여명 연루

前美協이사장 등 9명 영장·49명 입건

국내 최대 규모인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 부정과 미술협회 이사장 선거 비리에 광주지역 미술인 100여명이 한꺼번에 연루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남에 따라 광주 미술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3면> 지역 미술인들은 광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한편, 그동안 '예향'을 자부해 온 지역 이미지 실추와 함께 향후 각종 문화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우려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제자 또는 후배들에게서 돈을 받고 이들의 작품을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입상시켜 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국미술협회 전 이사장 하모(54)씨 등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60)씨 등 심사위원과 협회 간부, 청탁 작가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구속영장이 신청된 9명 가운데 한국미협 전 이사장 하 모씨를 비롯, 김모 문인회분과 위원장, 최모 심사위원 등 무려 6명이 광주·전남 출신 미술인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한국미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월 28일 제25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한국회부분 심사를 앞두고 후배 이모씨에게서 1천만원의 받고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넣어 이씨의 작품을 특선에 입상시켜 주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모두 4명의 작품을 부당하게 특선에 입상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인회분과위원장 김모(53)씨 등 2명은 제자 등으로부터 5천600만원을 받고 이들의 출품작을 입상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16일 심사위원 8명을 서울 서초동 A모텔로 불러 4박 5사 위원 등 무려 6명이 광주·전남 출신 미술인임을 미리 보게 한 뒤 수상작

으로 선정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치러진 한국미협 이사장 선거에서 무려 90여명의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이 표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수사중이다. 미술계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이같은 행위가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지자 지역미술인들은 침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술인 한모씨는 "한국화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 인사가 대거 연루됨에 따라 가뜰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미술계가 깊은 침체에 빠지거나 않을까 걱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석형 군수 등 함평군청 공무원들과 어린이들이 16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흰 나비 5천180마리를 날리며 5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나비 5,180마리 훨훨...공수부대 장병 참배...국제평화포럼 5·18 27돌 추모열기 고조

오늘 오후 7시 전야제

5·18 민주항쟁 27주년을 하루 앞두고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7·8·20면>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비가 간간히 내리는 곳엔 날씨에도 참배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광주 시내 곳곳에서도 각종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함평군은 이날 오전 5·18 민주묘지에서 나비 날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석형 군수 등 함평군청 공무원들은 묘지 내 박관현 열사의 묘 주변에서 흰 나비 5천180마리를 날려보내며 5

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열린우리당 유재건·이인영·우상호 의원과 정대철·신계륜 전 의원 등이 이날 오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등 정치인·학생·사회단체 등의 참배가 줄을 이었다. 또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11공수여단 장병도 묘지를 참배하고 묘지마다 태극기를 꽂아 눈길을 끌었다. 이날 5·18 기념문화관에서는 5·18 기념행사 가운데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자리 잡은 광주국제평화포럼이 개막돼 세계 각국 120여명의 인권활동

가들이 이주노동자·아시아 민주화운동에 관한 워크숍을 가졌다. 상무자 유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5·18 영창체합과 옛 전남도청 본관에서 진행중인 '태극기로 읽는 한국현대사'·80년 5월 10일간의 항쟁을 다종으로 표현한 '다종이 공예전시' 등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5·18 민주항쟁 제27주년 추모 열기는 17일 오전 9시30분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와 오후 7시 개최되는 전야제 행사에서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열손가락 없는 장애인 세계 최고봉 올랐다

광주 산악인 김홍빈씨 등 3명 에베레스트 등정

남도 산사나이들의 끈끈한 우정이 삶을 에는 흑한과 제트기류, 희박한 공기로 뒤덮인 '죽음의 지대'를 넘어 세계 최고봉 등정을 이뤄냈다. 열 손가락이 없는 광주 출신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44·송원대산악회(OB)씨)가 16일 동료 산악인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에베레스트(8,848m) 정상에 올라선 것이다. '희망을 위한 2007 한국도로공사 에베레스트·로체원정대' 박상수(48·광주시산악연맹) 원정대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위성전화통화에서 "김씨와 김미곤(35)·윤중현(37·이상 광주시산악연맹) 대원이 세르프와 3명과 함께 16일 오전 2차 공격에서 차례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다"고 밝혔다. 대원들은 전 날 밤 10시 제4캠프(7,925m)를 출발, 정상 공격에 나섰다. 김미곤 대원이 16일 오전 8시34분(한국시간 오전 11시49분), 김홍빈 대원은 오전 11시, 윤대원은 오전 11시45분 각각 세계 최고



지난해 6월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셔브롬 I·II봉 원정대 발대식에서 등정 성공을 다짐하고 있는 김홍빈(왼쪽)·김미곤 대원. <광주일보 자료사진> 봉 정상에 도달했다. 특히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매킨리(6,194m) 단독 등정 중 동상에 걸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한 김홍빈 대원은 제트기류와 흑한 속에서 13시간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정상에 섰다. 김미곤·윤중현 대원은 지난 4일 세계 제 4위봉인 로체(Lhotse·8,516m)봉 2007년 시즌 초등정에 이어 에베레스트까지 12일만에 8,000m급 2개봉 연속 등정에 성공했다. 이들 두 대원을 비롯한 6명의 원정대원들은 원정기간 내내 손가락이 없어 지퍼를 잠그거나 신발끈 묶는 일조차 혼자 하기 힘든 김홍빈 대원의 손이 되어 등반을 도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56년만에 철마 남북 달린다

오늘 경의·동해선 열차 시험운행

남북의 열차가 17일 경의선과 동해선을 달려 반세기 만에 휴전선을 넘는다. <관련기사 3면> 남북은 이날 오전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각각 '남북철도 연결구간 열차시험운행' 공식 기념행사를 갖고 오전 11시 30분 북측 개성역과 남측 제진역을 향한 열차를 동

시에 운행한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이다. 경의선 열차는 문산역을 떠나 도라산역에서 세관·통행검사를 거쳐 MDL을 통과한 뒤 세관검사가 있는 관문역을 거쳐 개성역에 도착하며 동해선 열차는 금강산역을 떠나 감호역에서 세관·통행검사를 받고 제진역으로 온다. 운행구간은 경의선이 편도 27.3km, 동해선이 25.5km다. 열차 운행에 앞서 열리는 기념행사의 경우 경의선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북측 장관급회담 단장인 권호웅 내각 책임참사 등이, 동해선 쪽에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과 북측 김용삼 철도상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한국인 선원 4명 탑승

소말리아 주변 해역에서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원양어선 2척이 납치됐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16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지시간 15일 낮 12시 40분(한국시간 15일 오후 6시 40분) 케냐 뭍바사항 출발, 예멘으로 가던 한국 어선 2척이 소말리아 해안에서 18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으로 추정되는 무장단체에 의해 납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척에 탑승한 전체 선원은 한국인 4명을 포함, 3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선박은 탄자니아 선

적으로 선장 및 선주는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후속 대응을 위해 김호영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외교부내 대책반을 꾸려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곧 관계부처 당국자들로 구성된 테러대책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원양어선 2척 소말리아서 피랍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홍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홍보실 1588-5051 ▶ T.(061)360-5000

제52회 호남예술제

▶ 미술·작문·논술[예선공모]
5월19일 접수 마감!!

▶ 미술·작문부문 입선제도 도입

www.kwangju.co.kr (한글)광주일보
(062)220-0541·222-8111



10년 후, 우리 아이들에게 듣고 싶은 말...

“아빠, 산성비가 뭐예요?”

최고의 기술은 가장 빠른 기술도, 가장 편리한 기술도 아닌 자연을 해치지 않는 깨끗한 기술이라 믿는 사람들- 금호아시아나는 지구의 건강이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사람 Beautiful Earth, Beautiful People



금호아시아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환경규제에 부합하여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천하며, 계열사별 환경친화적활동을 강화하여 지구환경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갑니다.

